

여성으로만 구성된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2019년 창립 105주년을 맞이했습니다. 다카라즈카가 창설된 1914년,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일본의 연극 형식과는 다른 서양식 연극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. 고바야시 이치조(1873~1957)는 이를 호기로 보고 노래와 춤, 드라마를 융합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 냈습니다. 다카라즈카 가극은 프랑스의 연극과 미국의 뮤지컬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, 1927년에는 『몽 파리 ~나의 파리여!~(Mon Paris)』가 제작되었습니다. 일본 첫 레뷰 『몽 파리 ~나의 파리여!~』는 뉴욕의 로켓츠(Rockettes) 같은 하이킥 댄스를 시작으로 하는 이전과는 다른 타입의 퍼포먼스를 도입했으며, 이후 다카라즈카 공연의 상징 및 모델이 되었습니다. 다카라즈카 가극은 일본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. 유럽과 아시아, 북미에서도 원정 공연을 하고 있으며, 해외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.

다카라즈카 가극단에는 약 400명의 단원이 재직하고 있으며, 꽃(하나), 달(쓰키), 눈(유키), 별(호시), 우주(소라)의 5개 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게다가 전과(専科: 센카)라는 그룹도 있으며, 경험을 쌓은 사람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들은 어느 조에도 속하지 않으며, 각 조의 공연에는 필요에 따라 출연합니다. 매회 다카라즈카 공연은 약 1시간 반의 연극 후에 짧은 휴식이 마련됩니다. 그리고 극중 인물은 모두 여성이 연기하고, 이야기는 대부분 남자 주인공(男役: 오토코야쿠)과 여자 주인공(娘役: 무스메야쿠)을 축으로 전개됩니다. 공연 후반부에는 관객들이 화려한 조명과 라이브 오케스트라와 함께 펼쳐지는 뮤지컬 쇼를 즐기며 눈길을 사로잡는 라인 댄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.

다카라즈카는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, 다카라즈카의 대부분 단원이 다카라즈카 가극단 졸업 후에 방송계와 영화계로 진출하는 등 활약하는 분야를 넓히기 때문입니다.